

##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한국 사회

김중락(경북대 역사교육과)

### 1. 표류하는 한국 사회

인구 48,422,644명(2005년 7월), 미국의 인디애나주 정도의 작은 국토를 가진 한국을 세계는 경이의 눈으로 보고 있다. 전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은 이제 GDP \$925,100,000,000(2004년 기준)으로써 세계 16위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다. 실업률은 3.6%로써 일본의 4.7%, 미국의 5.5%와 비교해서 월등히 낮은 편이다. 미래사회의 주요 기반인 인터넷은 세계 최고의 보급을 기록하고 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지난 세기말 제작된 'People's Century'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20세기 위대한 성취의 하나로써 자세히 다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는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심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은 서로를 자극하여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기는커녕 구성원 서로간의 극단적인 증오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으며,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는 우리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원시켜 놓았다. 이제 우리 사회의 유일한 신은 돈이다. 꿈과 이상을 지니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젊은이들이 돈과 찰나적인 쾌락을 위해 소중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는 정신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겨온 우리의 전통을 모조리 사장시켰고, 따라서 우리의 문화는 견딜 수 없는 가벼움으로 가득차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전통사회의 공동체적 정신을 무너뜨리고 세계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가정마저 붕괴시켰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한 사회도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회를 위해 봉사할 때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즉 우리 사회가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체로써 방향을 잡고 그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때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한국 사회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구성원들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국제 사회에 큰 부담을 지워주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자들이 추구하였던 '국가의지'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또 하나의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일부 국제 사회의 주도적 국가들처럼 우리도 국제 사회에 물질적, 외부적 도움으로 기여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이러한 것은 일시적일 뿐 지속적인 것이 되지도 못한다.

그러면 한 사회의 진정한 기여란 무엇이며, 어떻게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Hegel은 어느 국가이든 세계사에 한번은 기여할 기회를 가진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Hegel이 말하는 세계사적 기여란 한 사회의 문화와 제도가 그 우수함으로 인해서 세계의 다른 사회에 전파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세계사에 기여를 했고, 프랑스인들은 인간의 평등함을 증명하였고, 영국인들은 과학과 기술로 인류의 크고 작은 많은 제약을 극복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우리가 국제 사회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제 사회가 모방할 것을 창조해내고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우리가 세계사에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는 아직 그 한번의 기회를 못 가진 것인가?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세계사적 기여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작금의 현실은 우리가 세계사적 기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아보

기 어렵다. 우리사회는 엔진이 고장난 배가 급류를 만나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다.

## 2. 창조성을 배우지 않는 한국인

그러면 우리 사회가 세계사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지녀야 할 창조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다. Arnold Toynbee는 그의 저명한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한 사회는 소수의 창조성을 지닌 ‘창조적 소수자’(Creative Minority)와 창조성을 지니지 못한 대중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한 문명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주어진 도전을 성공적으로 응전해야만 하며, 성공적인 응전은 창조성을 지닌 소수자가 창조성을 제시하고 대중들은 이들의 창조성을 모방할 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Toynbee는 만일 그 문명의 엘리트들이 창조성을 제시하지 못하면, 대중은 모방을 거두게 되고 이는 도전에 대한 실패를 가져오며,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문명은 쇠퇴와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건데 우리의 지도자들은 창조성 즉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제대로 된 vision을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들이 간혹 제시한 vision은 전혀 창조성을 지니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항상 vision을 스스로의 창조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에 제시된 것을 변형없이 그대로 모방하여 대중에게 제시하였다. 중국의 문화와 제도는 각 시대마다 우리사회에 그대로 도입되었다. 천년이상 우리는 그렇게 인도되었다. 해방이후 우리의 엘리트들은 이제 중국이 아니라 서구로부터 모든 것을 유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엘리트들은 서구의 근대화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우리의 정신을 서구의 정신으로 대체시켰다.

창조성을 지닌 vision에 대한 모방이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 사회 또는 한 시대에 제시된 vision이 창조성을 가진다 해도 다른 사회 또는 다른 시대의 사회에도 창조성을 지니기는 어렵다. Toynbee는 한 문명이 지속적으로 창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창조성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한 시대의 창조성은 다른 시대의 창조성이 되기 어렵고, 한 사회의 창조성은 다른 사회의 창조성이 되기 어렵다. 그것은 각 시대마다 그리고 각 사회마다 주어지는 도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새로운 도전에는 새로운 창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즉 우리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도전이 중국이나 서구의 것과는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용한 창조성을 내적 승화 없이 그대로 모방하는데 급급하였다. 때때로 우리 나름의 창조성을 발휘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창조성을 발휘하였지만 이는 창조성을 전혀 가지지 못한 무리들에 의해 사장되었다. 즉 우리는 한글을 확대하여 이웃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언어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장시켜버린 것이다. 한글이 동양의 국제어가 되었다면 우리의 역사는 지금의 것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Toynbee는 창조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 대해 대중은 모방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중은 엘리트들에 대한 그들의 모방이 한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들을 좌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조성이 없는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우리의 대중은 사대(事大)라는 지도자들의 정신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서구적 근대화 모델을 맹신하였고, 근래에는 ‘오리엔탈리즘’의 포로가 되어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우리의 엘리트들과 대중 모두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엘리트들은 창조성이 결여된 vision이 우리 사회가 마주친 도전을 응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교훈을 배우지 못하였고, 대중은 그들에 대한 모방이 의미 없음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엘리트들과 대중은 우리에게 창조적 소수가 필요함을 배워도 오래전에 배워야만 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3. 영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

우리 기독교인은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거기 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로마를 멸망시키셨고, 일본의 압제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호흡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직접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다. 즉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인간의 구원이라는 목적으로 출발시키셨다. 따라서 역사는 인간의 구원을 향해 진행되는 구속의 역사이다.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의 장’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존재하는 어떤 사회의 역사에서도 섭리하시며 그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 하에 있다. 함석헌 선생은 그의 『뜻으로 본 한국사』에서 우리 민족에 주어진 뜻을 ‘고난’으로 보았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동북아에 존재하였던 모든 민족으로부터 다소간 침략과 지배를 받았다. 중국 한족의 침략을 받았으며, 몽고족과 여진족의 침략을 받았으며 그들의 신하국이 되기도 하였다. 삼나라 일본까지 우리를 침략하여 결국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다. 동북아 거의 모든 민족이 중원의 지배한 경험이 있지만 우리는 고구려가 만주벌판을 잠시 지배한 것이 고작이다. 이쯤 되면 우리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 불러서 이상할 것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우리에게 이 같은 고난을 가져왔는가가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고난의 역사는 우리에게 국제사회에 중요한 자격을 부여해주고 있다. 보복을 행할 자격이 있는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피해를 입은자만이 배상을 요구치 않을 권리가 있으며, 침략을 당한자만이 평화를 선포할 수 있다. 즉 우리의 고난의 역사는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역설적인 원리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고난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우리의 고난도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역사 역시 구속사의 범주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난의 역사는 희망의 역사이다. 고난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성이 회복되어도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창조성을 가진 사회가 되려면, 세계사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자면 우리의 고난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고난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는 고난으로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과 가슴 벅참을 주는 고난이 될 것이다. 이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고난을 격어야 하는지를 말해주어야 할 것이다. David Bebbington은 “역사가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희망의 역사를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역사가이다. 그것은 기독교가 역사이고 역사가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필자는 하나를 더하고 싶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창조적 소수자여야 한다.